

# 하늘 사랑

MAY 2026  
vol. 539

# 5

cover story

햇무리

2023년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유명해



ISSN 3058-8758(Print)  
ISSN 3058-8766(Online)

 기상청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게  
날씨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 하늘 사랑

vol. 539

5

MAY 2026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11~14층)  
전화 (02)2181-0356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26년 5월 5일  
발행인 이미선  
편집장 민현주  
편집기획 김승민, 이호준, 김지은  
디자인/인쇄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인쇄사업단



cover story

햇무리

2023년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유명해

## Contents



## Special Theme

### 포커스 뉴스

02

기상청사람들\_ 날씨가 궁금하면 국번 없이 131,  
기상콜센터를 아시나요?

04

낙하하는 우박 코어를 포착하라!  
지상우박 가능역 탐지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t.or.kr](http://www.kogt.or.kr)



### Weather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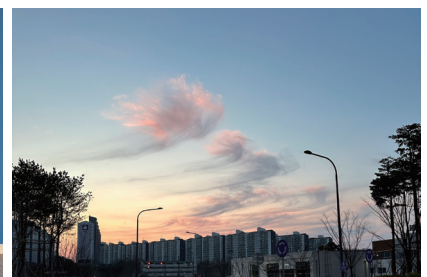
- 06 영화\_ 언어의 정원
- 08 관악산 기상관측소에서의 3일
- 10 맛있는 계절\_ 가지 또띠아 피자
- 12 봄비를 기다리는 아이

### Theme Story

- 14 과연 지구 온난화는 전지구 1.5°C를 넘었을까?
- 16 해양의 모든 정보를 담은 해양기상기후정보로 확인하세요
- 18 국가 기상관측망을 함께 지키는 동반자, 기상전문기관 이야기
- 20 'K-팝, K-콘텐츠, 그리고 K-기상과학'
- 22 예보 뒤에서 현장을 잇는 행정의 하루

### Report

- 24 Photo briefing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 25 Platform
- 26 오늘, 당신의 날씨



# 기상청 사람들

날씨가 궁금하면 국번 없이 131, 기상콜센터를 아시나요?



기상청 디지털소통팀에서는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기상청)을 운영하며, '기상청 사람들'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사람들'은 기상청 직원들의 다양한 업무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휴먼 스토리까지 소개하는 콘텐츠입니다.



하루 평균 2,000건이 넘는 전화가 오는 곳. 이곳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131 기상콜센터입니다. 날씨 정보는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외국인 또는 날씨가 애매하거나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상콜센터는 바로 그런 지점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창구입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현재 날씨부터 예보, 특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전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간 70만 건 이상의 상담이라는 수치는 이곳의 역할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지만, 그 안에는 각기 다른 상황과 사연을 가진 국민들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촬영은 단순히 기상콜센터의 기능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그 질문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상담사들은 어떤 준비를 거쳐 전화를 받고,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이어가는지, 그리고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이 역할이 왜 여전히 중요한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

## 🕒 전화기 너머, 기상콜센터의 숨겨진 하루



정부가천중합청사 내 기상콜센터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전화 상담을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시끄럽게 할 수 없어 마치 도서관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안의 흐름은 결코 느리지 않았습니다. 촬영 당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이미 1,100건이 넘는 전화가 접수되었고, 상담사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통화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많게는 2,000건에 이르는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실감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상담에 앞서 이루어지는 '예보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년퇴직한 기상청 예보관이 직접 날씨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상담 내용을 정리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이 과정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상담을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같은 예보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상담의 출발점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49명의 상담사들이 주야간으로 나뉘어 24시간 근무를 이어가는 구조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문의와 상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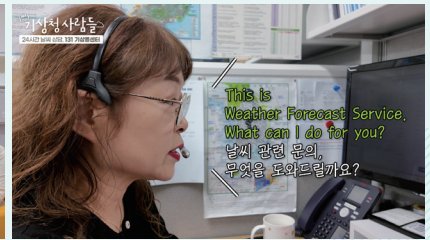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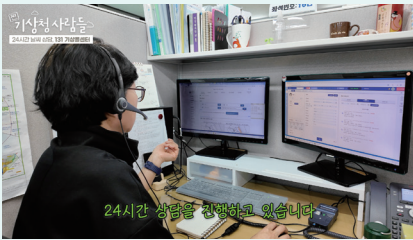
대응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콜센터는 멈춤 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침과 새벽 시간대를 책임지는 상담사, 외국어 상담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와 소통하는 상담사 등 각자의 자리에서 만들어 내는 연결이 하나의 서비스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



### 단순한 날씨 안내를 넘어, 삶에 닿는 질문들

촬영을 하며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상담의 범위였습니다. 콜센터로 문의가 온 질문은 단순히 날씨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그 의미를 해석하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려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비가 올까요?”라는 질문보다 “이 정도 예보면 행사를 진행해도 될까요?”와 같은 문의가 더 많다는 상담사의 설명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날씨 정보가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출 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시각장애가 있는 이용자, 빵을 만들기 위해 습도를 참고하는 자영업자, 바다낚시나 항공편 운항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등 기상정보는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왔던 날 하루에 1만 건이 넘는 전화를 응대했던 경험, 어린아이가 영어로 날씨를 물으며 대화를 이어가던 순간, 그리고 예보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통화가 설명과 공감을 통해 이해와 감사로 바뀌었던 사례까지. 이곳의 상담은 단순한 안내 그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특히, 민원 응대 과정에서 상담사들이 강조한 것은 ‘경청’이었습니다. 상대의 상황을 충분히 듣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하며,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를 함께 안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도, 공감과 소통의 영역은 여전히 사람의 몫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 직접 보고 느낀 131 기상콜센터

영상을 기획할 때만 해도 131 기상콜센터는 ‘전화로 날씨를 안내하는 곳’이라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직접 보고, 상담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그 의미는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화 한 통 안에는 정보 전달을 넘어, 누군가의 하루를 돕기 위한 고민과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날씨를 두고도 상대의 상황에 맞게 풀어 설명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고, 때로는 함께 상황을 고민해 주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짧은 통화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준비와 경험이 담겨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131’이라는 숫자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번호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는 창구이자 일상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또 하나의 기상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많은 분께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상청 사람들’을 포함한 기상청의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QR코드로 접속해 주세요!



## 낙하하는 우박 코어를 포착하라! 지상우박 가능역 탐지

봄날의 불청객 우박으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상층 탐지를 넘어 지상 낙하의 확신을 더하는 '지상우박 가능역' 탐지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예보관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예보영 기상레이더센터

### 봄날의 기습,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오후, 평화롭던 하늘이 갑자기 어둡해지더니 '투투투' 소리와 함께 하얀 얼음 알갱이들이 쏟아집니다. 바로 우박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쏟아지는 이 얼음은 정성껏 키운 농작물을 망가뜨리고, 자동차 유리를 파손시키며, 캠핑족의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기상청 예보관들에게 우박은 아주 까다로운 숙제입니다. 우박을 만드는 구름은 좁은 지역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가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신출귀몰한 우박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기상청은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 상층 탐지를 넘어 지상 도달의 확신으로

기상레이더는 거대한 구름 내부를 3차원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전국 곳곳에 설치된 레이더는 강수 구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예보관들이 위험기상을 한발 먼저 인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는 레이더 자료를 활용해 하늘의 우박 신호를 미리 탐지하는 '우박 가능역' 기술을 개발하여 예보관의 대응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업 현장의 잦은 피해와 항공 운항의 안정성 확보 등 지상에 실제로 도달하는 우박 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기술 고도화가 필요해졌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존재하던 우박이 낙하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공기를 만나 녹아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 하강하는 우박 코어에 집중하다

그래서 기상레이더센터는 기존 정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상우박 가능역' 탐지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역설적으로 단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의 수많은 복잡한 과정을 고민하는 대신 물리적인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구름 속의 무거운 얼음이 중력을 이기고 실제로 내려오고 있는가?"라는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박 구름의 중심이자 얼음 알갱이가 가장 모여있는 코어(Core)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쫓았습니다. 우박이 크면 떨어지고, 고도가 낮으면 떨어진다는 원리에 집중한 덕분에, 하늘 위의 신호가 아닌 지면에 닿는 '진짜 위험'을 훨씬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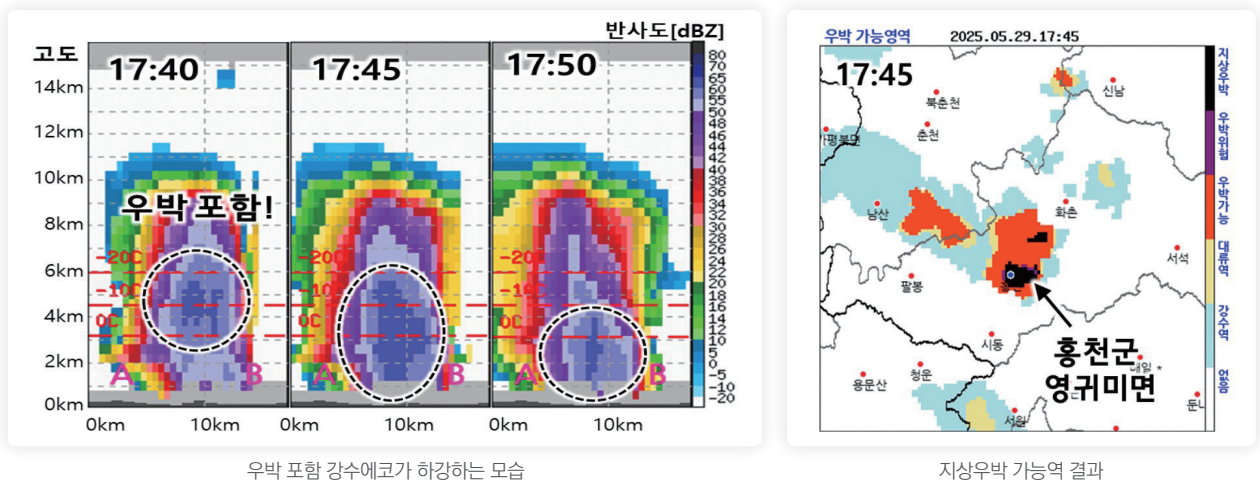


### 정답이 없는 시험, 우박 추적자의 고군분투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답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나 눈은 촘촘한 관측망에서 정확한 양이 측정될 수 있지만, 우박은 사람이 직접 보고 기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깜깜이 자료입니다. “우리 동네에 우박이 왔어요!”라는 제보는 많지만, 지상 우박 정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분 단위, 읍면동 단위로 기록된 실측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작년 5월 29일 오후 6시쯤 홍천군 영귀미면에 우박이 내렸다는 제보를 강원도민일보를 통해 확인했지만, 정확한 시간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레이더 영상과 대조해 오후 5시 45분부터 10분 동안 우박이 내린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수많은 레이더 영상과 불분명한 목격담을 일일이 대조하며 검증해야 했습니다. 그 고된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술이 예보관의 손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홍천군 영귀미면 우박 제보 사진  
(출처: 강원도민일보)



우박 포함 강수예고가 하강하는 모습

지상우박 가능성 결과

### 예보관의 확신을 돕는 레이더의 힘

새롭게 개발된 지상우박 가능성 정보는 이제 예보관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지방기상청에서는 과수 농가에 우박 기상정보를 안내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항공기상청에서는 공역과 공항에 내리는 우박에 빠르게 대응해 항공기 운항과 공항 지상조업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날씨알리미 앱에서 내가 있는 위치의 우박 위험 알람을 받아보고 야외활동 중 잠시 우박을 피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 하늘의 비밀을 포착하고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상레이더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늘을 읽는 일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비가 오고 꽃이 질 때  
다시 산책하는 시간:

영화

# 언어의 정원 2013

김동진 작가



출처: 네이버

고등학교 1학년인 타카오는 비 오는 날이면 몰래 1교시를 빠지고 신주쿠 공원에 간다. 그가 도쿄 도심에 있는 그 큰 공원 정자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비가 올 때에만 만날 수 있는 도시와 정원의 색다른 풍경들이 있기 때문. 어느 날은 그 정자에 타카오 혼자만 아니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은 채 초콜릿을 안주 삼아 맥주를 마시는 유키노가 있다. 모르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된 건 타카오가 구두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러닝타임 46분으로 중편 정도에 해당되는 애니메이션 <언어의 정원> (2013)은 지금은 <너의 이름은.>(2016)과 <날씨의 아이>(2019), <스즈메의 문단속>(2022)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팬덤을 확보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비교적 초중기 작품이다. 본인의 작품을 직접 소설화할 정도로 섬세한 스토리텔링에 일가견이 있는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들 중 <언어의 정원>은 특히나 실제 풍경을 사진으로 그대로 옮긴 듯한 세부적인 작화의 미감이 돋보인다. 일상 소품들에 대한 정밀한 묘사는 이야기에 생활감을 또렷하게 하고, 빛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과 풍경의 명암, 그리고 풍경을 거의 360도로 묘사하는 패닝 샷은 관객 또한 마치 그 장소에 있는 것 같은 실감을 안겨준다.



출처: 네이버

90분 이상의 장편 애니메이션에 비하면 인물이 겪는 사건이나 상황 묘사보단 내면의 독백 중심인 이야기가 주는 서사적 감흥은 어떤 관객에게든 부족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언어의 정원>은 일본에서 개봉 시기를 5월로 택한 이유가 고스란히 납득될 만큼 지금 감상하기 적역인 작품이다. 영화가 어떤 날씨와 계절을 정확히 포착할 때, 더 엄밀하게는 타카오가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비가 와 있거나 내리는 중 이기를, 그리하여 유키노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게 되는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관객은 여러 영화에서 자주 보던 늦봄과 초여름 사이의 날씨를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 작중 비가 내리고 인물들이 정자 밑에서 비를 피하거나 혹은 빗속에 마음을 가만히 흘러두는 사색의 시간을 보낼 때, '언어의 정원'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돌아보게 된다.

이상하고 때로는 제멋대로이면서 너무나 보통의 그것인 듯싶지만 이런 마음은 다 설명하려 하면 어느 순간 실패한다. 생의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주저앉은 한 사람을 다시 걷게, 또는 더 멀리 걷게 해 줄 수 있었다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 역시 몇 걸음은 더 내디딜 수 있었을 것이다. <언어의 정원>이 5월 말부터를 계절적 시간적 배경 삼는 건 변화무쌍한 환절기가 사람의 마음과 닮아서일 것이다. 비가 오래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날 야속하게 짙한 햇살이 내리고, 오히려 맑았으면 하고 바랐던 날 소나기가 내린다. 타카오도 유키오도, 비 오는 날 공원에서 한두 시간 함께하는 인연으로 다음 날에도 비 오는 날씨가길 바라는 날들이 쌓인다. 여기에서 물론 두 사람 각자의 나이나 직업, 상황과 같은 환경적 요소가 개입하거나 관계를 가로막지만 아무래도 그것 자체가 이 영화에서 전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 듯하다.



출처: 네이버



출처: 네이버

타카오가 누군가를 위해 구두를 직접 만들어주고 싶다는 바람과 목표를 갖는 일은 마치 우산을 만들어주고 씌워주고 싶다는 마음과 닮아 있다. 우산이 단지 비를 피하게 하는 정도의 역할이라면 구두는 한 사람을 걷게 한다. 교사인 유키오는 학교에서 어떤 일로 겪은 정신적 상처를 살아내며 주저앉은 채 초콜릿과 맥주에 의존하다 타카오와의 대화로 점차 일상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한다. 신카이 마코토가 직접 쓴 소설판에 따르면, 타카오 역시 수제화를 만드는 일을 실제로 꿈꾸며 장차 성인이 된 뒤 유럽으로의 유학 계획을 세운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어떤 의미에서 구하거나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는 셈이다. 그래서 이미 한 시인이 근사하게 표현해 놓았다. “멀리서 구하지 않아도 이미 도착한 것일지 모른다고(…) 한 사람을 구하는 일은 한 사람 안에 포개진 두 사람을 구하는 일

이라는 거”(안희연, 「금홍의 뜻」) <언어의 정원>을 보면 날씨가 사람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거나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바꿔놓는 정경으로 가득하다. 한철 장마가 지고 나면 따라서 지는 것들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도 있다. 그것들을 맞이하려 다시 산책을 나선다.

# 관악산 기상관측소에서 3일



최서연 방송작가

요즘 관악산이 유독 붐빕니다.

관악산에 오르면 운이 풀린다는 말 한마디가 입소문을 타면서, 험하기로 유명한 이 산에 젊은 발걸음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결과들. 내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타이밍 앞에서 사람들은 다시 ‘운’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활한 <다큐멘터리 3일> 관악산 편도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지금 이 시점에, 관악산을 찾을까. 새벽 어둠을 뚫고 홀로 오르는 취업 준비생도 있었고, 아이의 앞날을 걱정하며 산을 찾는 부모도 있었고, 건강과 생업의 안녕을 빌며 오랜 세월 이 산을 오르내린 어르신들도 있었어요. 사연은 제각

각이었지만, 다들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르고 있더군요. 어떤 면에서는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보이지 않는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오르고 있는 셈이었죠. 그런데 이번 촬영에서 제 마음에 가장 깊게 남은 곳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관악산 정상의 기상관측소였습니다.

기상청 원고를 기고하면서 늘 글로만 만나던 분들, 이번에는 실제 현장에서 처음 뵈게 됐잖아요. 높은 산 위, 거센 바람과 급변하는 날씨 속에서 묵묵히 하늘을 읽고 계신 분들...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 기상관측이 단순히 숫자와 데이터의 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곳에서, 누군가는 하루하루 하늘의 변화를 읽어내며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있었더라고요.

관악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미래가 불안해서 산을 찾는다면, 관악산 기상관측소 사람들은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읽어내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잖아요. 막연한 불안을 관측과 분석, 그리고 예보로 바꿔내는 사람들. 하늘이 내린 숙제를 풀다는 말이 딱 맞겠다 싶었습니다. 같은 관악산 위에서 누군가는 소원을 빌고, 누군가는 하늘의 신호를 읽고 있다는 사실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한쪽이 미래를 알고 싶어 산을 오른다면, 다른 한쪽은 그 미래를 조금이라도 또렷하게 보여주기 위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현장에서 본 기상레이더 역시 참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올려다보는 하늘 뒤편에서, 저렇게 쉽 없이 움직이며 미래를 읽는 장치가 있다는 게 새삼 놀랍더라고요. 그 레이더만큼이나 더 인상 깊었던 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높은 곳에서, 아무도 크게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더 정확한 예보를 위해 애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니 참 고맙게 느껴지더군요. 우리가 비를 피하고, 바람을 대비하고, 조금 더 편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관악산을 찾는 열풍도 결국은 미래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누군가는 운을 빌고, 누군가는 마음을 다잡고, 누군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러 산에 오르죠. 그리고 그 산 정상에서는 또 누군가가 불안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정확한 예보로 바꾸기 위해 애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관악산 72시간은 제게, 같은 산 위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마주하는 사람들을 본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삶은 한 번에 바뀌지 않잖아요.

산을 오르는 일도, 하늘의 변화를 읽어내는 일도 모두 한 걸음씩 쌓여가는 일이라구요. 우리 인생에도 저마다의 레이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와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내 마음의 레이더를 조금 더 높은 곳에 세워보는 일. 레이더가 높을수록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빨리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막연한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삶을 잘 살아낸다는 건, 불안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다가올 변화를 조금 먼저 알아차리고 내 자리를 단단히 지키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관악산 72시간은 그렇게 오늘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미래를 마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도 그런 마음 하나를 건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오늘의 걸음을 믿어보는 것. 미래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생각보다 꽤 멀리 와 있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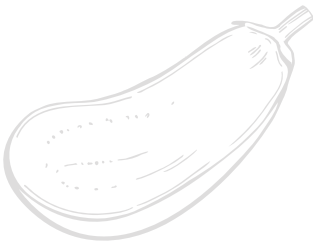


\*추신: 이번 관악산 72시간 촬영은 기상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정상 위 좁은 관측소 문을 기꺼이 열어주신 덕분에, 그 누구도 담지 못했던 관악산의 얼굴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일의 하늘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께, 이 지면을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5월의 오후, 보랏빛 피자를 굽다

## 가지 또띠아 피자



이주현 푸드칼럼니스트

5월의 공기에는 형용할 수 없는 생동감이 서려 있다. 창문을 열면 별이 쏟아져 들어온다. 막 세상에 나온 어린 잎사귀들을 투명하게 비추는 빛. 뺨을 스치는 바람처럼 딱 알맞은 온도다. 일년 중 가장 맑고 쾌청한 이 시기, 하늘은 갓 세수한 아이의 얼굴처럼 해맑다.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5월은 이 화창한 날씨를 꼭 닮았다. 별은 적당히 뜨겁고, 그 아래를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덩달아 활기차다. 이 계절, 주방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신나는 놀이터가 된다.

요리 연구가로서 수많은 식재료를 다루지만, 5월이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채소가 있다. 바로 '가지'다. 사계절 내내 볼 수 있지만,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이 무렵부터 비로소 제맛을 낸다. 다만 아이들에게 가지는 그리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다. 특유의 무른 식감 때문이다. 이때 만들면 좋은 요리가 '가지 또띠아 피자'다. 얇은 또띠아를 도우 삼아 제멋대로 토핑을 올리다 보면, 편식이라는 장벽은 붉은 녹듯 사라진다.



사실 가지는 세계 곳곳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식재료다. 이탈리아에서는 가지를 두툼하게 썰어 토마토소스와 치즈를 쪼켜이 얹은 '파르미자나'로 즐기고, 중동에서는 가지를 통째로 구워 으갠 뒤 참깨 페이스트를 더한 '바바가누쉬'로 식탁에 올린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지나물이나 가지찜으로 오래전부터 친숙하게 먹어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토록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건, 가지가 그만큼 어떤 맛과도 잘 어우러지는 유연한 채소라는 뜻이다. 아이들이 유독 꺼린다는 게 오히려 억울할 정도다.

### 진한 보랏빛에 담긴 영양

그런데 이 보랏빛 채소, 알고 보면 꽤 대단하다. 가지의 짙은 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다.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90% 이상이 수



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온이 오르는 계절에 수분 보충에도 좋다. 차가운 성질 덕에 몸의 열을 내려주기도 한다. 식이섬유와 칼륨까지 풍부하니, 이렇게 훌륭한 채소를 그동안 기피해 왔다는 게 오히려 아쉬울 정도다.

좋은 가지를 고르는 눈도 필요하다. 신선한 가지는 껍질이 팽팽하고 윤기가 흐르며, 꼭지가 싱싱하게 살아 있다.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단단하게 탄력이 느껴지는 것이 좋다. 구입한 가지는 물기를 닦은 뒤 랩이나 신문지에 개별로 싸서 냉장 보관하면 된다. 가지는 저온에 약한 편이라 냉동 보관보다는 2~3일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요리할 때는 썰고 나서 소금을 살짝 뿌려 10분 정도 절여두면 쓴맛이 빠지고 수분도 잡힌다. 또 가지는 기름을 잘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볶음이나 튀김보다는 오늘처럼 오븐에 굽는 방식이 훨씬 담백하고 건강하다.



### 또띠아 위의 작은 정원

주방 바닥에 오후의 햇살이 길게 깔린다. 얇고 동그란 또띠아는 아이들에게 커다란 캔버스가 된다. 붉은 토마토소스를 바르는 손길마다 설렘이 묻어난다. 얇고 길쭉한 가지를 직접 올리고, 싱그러운 바질잎을 코끝에 갖다 댈다. 평소라면 식탁에서 실랑이를 벌였을 채소들이, 아이들의 손끝에서 알록달록한 꽃으로 다시 태어난다.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베이컨과 치즈를 넉넉하게 올리는 센스도 잊지 말아야 한다. 5월의 풍경만큼이나 아름다운 광경이다. 오븐에서 갓 꺼낸 피자를 한 입 베어 문다. 또띠아의 바삭함, 치즈의 고소함, 구워진 채소들의 농축된 단맛이 경쾌하게 어우러진다. 아이들은 제 손으로 완성했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평소라면 골라냈을 가지까지 말끔히 먹어 치운다.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가장 큰 비결은, 역시 함께 정성을 들이는 시간 그 자체에 있다.

가지의 선명한 보라색만큼이나 마음도 유독 더 진해지는 달이다.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된다.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고백이 된다. 5월은 그런 달이다. 거창한 선물보다, 보랏빛 다정함을 함께 굽는 이 시간만으로 충분히 빛나는.

## 가지 또띠아 피자

### 필요한 재료

또띠아 1장, 가지 1개, 토마토 페이스트(파스타 소스) 200ml, 베이컨 30g, 양파 100g, 체다 슬라이스 치즈 1장

### 만드는 과정

- 1 기름을 두른 팬에 베이컨과 양파를 볶는다.



- 2 또띠아 위에 토마토 소스를 펴바르고, 베이컨과 양파를 올린다.

tip : 또띠아가 얇다면 2장을 겹쳐 사용한다.



- 3 치즈를 취향껏 올린다.



- 4 채칼로 가지를 얇게 썰어 올린다.

소량의 기름, 후추를 뿌려 180도 오븐에서 5~10분간 굽는다. 취향껏 바질 등의 허브를 뿌려 완성한다.





# 봄비를 기다리는 아이

박상현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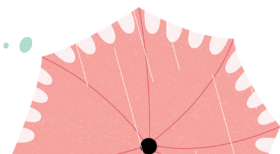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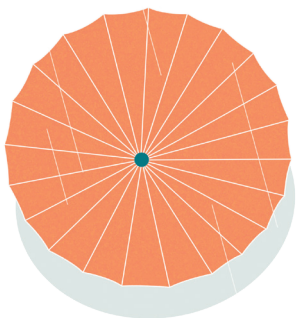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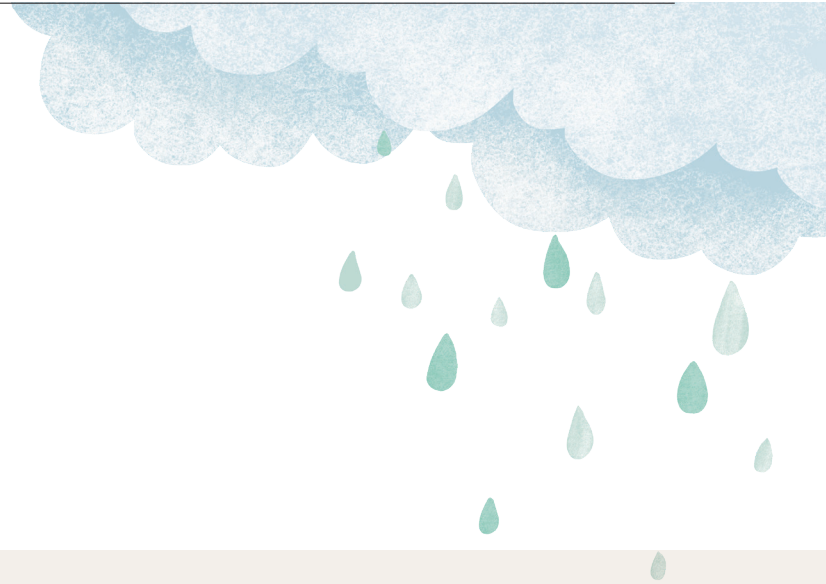
아직 세 돌이 안 된 우리 아이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 타닥타닥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기도 하고, 번쩍이는 번개를 보고서 눈을 부셔하거나, 천둥이 내는 굉음을 듣고는 무섭다며 내 팔을 꼭 끌어안기도 한다. 나도 아이 덕분에 비 오는 날이면 노트북과 스마트폰 화면에서 벗어나 진짜 창밖 세상을 보곤 한다.

아이가 비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산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빗소리가 들리면 신발장 제일 왼쪽 칸에 있는 우산꽂이에서 자기 우산을 꺼낸다. 아직 우산을 제대로 들 힘이나 요령은 없어서, 거실에 우산을 펴놓고는 그 안으로 들어가 비 피하는 시늉을 한다. 빗방울이 굵어져 빗소리가 커지면 장화도 들고 와 신는다.

아이는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베란다로 달려간다. 창밖이 잿빛으로 뿌옇게 변해 있으면 “미세먼지 안 좋아”, 비가 내리면 “우산 챙겨야 돼”, 화창하면 “반짝반짝해” 하고 말한다. 굳이 날씨 앱(app)을 확인하지 않아도 아이가 아침마다 들려주는 날씨 이야기가 꽤 정확해서 그걸 듣고 등원 준비를 할 때도 많다.

그런데 올 3월은 아이가 좋아하는 비가 자주 내리지 않았다. 비가 내리나 기대하고 베란다로 갔다가 “아쉬워” 울상 지으며 품에 안기는 날이 많았다. 서울은 올 3월 한 달간 9일 비가 내렸다. 작년(31일 중 14일)보다 닷새나 적게 내린 것이다. 초봄인 3월은 원래 대기 불안정이 커지면서 비구름대가 자주 만들어지지만, 올 3월은 마치 늦봄이 당겨져 온 것처럼 고기압 영향권 아래서 따뜻한 날이 더 많았다.





이런 탓에 초미세먼지(PM2.5)에 갇힌 날은 늘어났다. 서울은 3월 한 달간 25개 구 중 한 곳이라도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을 기록한 날이 31일 중 19일에 달해, 작년(31일 중 15일) 기록을 크게 넘어섰다. 3월 말에 꽃망울을 터트린 벚꽃도 미세먼지 속에서 봐야 했다.

서울에 봄비가 예보된 며칠 전 아이와 동네 산책을 했다. 그날 아침 아이는 창밖을 보고는 “깜깜해”라고 말했다. 곧 비가 올 거라 구름이 낀 것인데, 미세먼지가 상공을 덮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직 비는 내리지 않고 있어서 우산을 챙겼더니, 아이가 “비 안 와” 하면서 손사래를 쳤다. 나는 “곧 비가 올 거야. 나가서 웅덩이에서 첨벙첨벙하면서 놀자”하고는 아이와 함께 쓸 우산 하나를 챙겨 나갔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데 얼마 뒤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부슬비였다. 아이는 하늘을 한 번 쳐다보더니 내 품으로 달려와 “우산 씌워줘”하고는 신나 했다. 내 말대로 비가 내리는 것이 신기했는지 조금은 흥분된 목소리로 “진짜 비가 와”라며 신기해하기도 했다. 나는 “기상청에서 알려주신 거야. 이제 비가 오는지 알고 싶으면 기상청에 물어보면 되는 거야”라고 알려줬다.

3월 내내 탁했던 서울 하늘이, 4월이 돼서야 내린 봄비 덕에 비로소 쾌청해졌다. 간간이 부는 바람에 빗방울이 얼굴로 날아들 때마다 아이는 손으로 물을 닦아내며 “시원해”하고 웃었다. 일 년에 며칠 되지 않는 미세먼지 걸린 포근한 날이 이 아이의 미래에는 더 많이 찾아오기를, 그때는 비를 흠뻑 맞더라도 ‘산성비’나 ‘플라스틱 비’ 걱정은 없기를 소망했다. 짧은 비가 그치고 나자, 아이는 말했다. “아빠, 기상청에 비 언제 또 오는지 물어봐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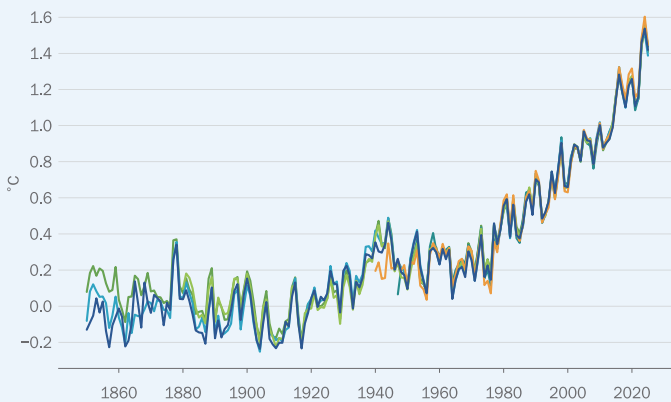
## 과연 지구 온난화는 전지구 1.5°C를 넘었을까?

현유경 국립기상과학원

요즘 뉴스에서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이 1.5°C 상승했다”거나 “지구 온도가 1.5°C에 가까워졌다”, “어떤 달에는 1.5°C를 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지구 온난화가 이미 1.5°C를 넘어버린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왜 1.5°C라는 숫자가 중요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왜 1.5°C일까?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 지구의 기후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 즉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 2015년에는 파리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에서 각 나라들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2°C보다 낮게, 가능하다면 1.5°C 이하로 제한하자.” 그 이유는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폭염, 폭우, 가뭄, 해수면 상승 같은 기후변화의 피해가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학자들은 1.5°C를 중요한 경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이 수준을 넘어가면 기후변화의 영향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과학자들은 “지금 지구가 얼마나 따뜻해졌는지”를 계속 관측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지구 평균 기온 편차 변화(1850~1900년 대비), 1850년부터 2025년까지. 여섯 개의 관측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25년 평균은 1~8월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하였다.

###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전지구 평균 기온 변화

여러 관측 자료에서 지구 평균 기온이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 1.5°C 수준에 근접, 2024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음을 보여준다.

- 버클리 어스 전지구 기온 자료
- ERA5 재분석 전지구 기온 자료
- NASA GISTEMP 전지구 기온 자료
- 영국 기상청 HadCRUT5 전지구 기온 자료
- 일본 JRA-3Q 재분석 기온 자료
- NOAA 전지구 기온 자료

###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갔을까?

이런 중에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보다 약 1.45°C 높았습니다. 이전에도 더운 해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는 약 1.29°C, 2020년에는 약 1.27°C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높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상황은 더 놀라웠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기온이 약 1.54°C 상승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1.5°C를 넘어버린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5°C에 도달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 한 번 넘었다고 해서 바로 1.5°C는 아니다

지구의 온도는 매년 똑같지 않습니다. 엘니뇨 같은 자연 현상이나 여러 기후 요인 때문에, 어떤 해는 더 덥고 어떤 해는 조금 덜 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온도만 보고 1.5°C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20년 정도의 평균 온도를 사용해 지구가 실제로 얼마나 따뜻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적인 변동을 줄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년 평균을 계산하려면 앞으로 10년의 자료도 필요합니다. 즉, 지금의 정확한 온난화 수준은 10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기상기구(WMO)는 과학자들과 함께 지금의 온난화 수준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온난화를 알아보는 세 가지 방법

현재 전 지구 온난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10년의 관측 자료와 앞으로의 기후 모델 전망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과거 자료와 미래 예측을 합쳐 20년 평균에 가까운 값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관측된 기온 자료에서 장기적인 추세를 계산해 현재의 온난화 수준을 추정합니다. 세 번째는 온실가스와 같은 인간 활동의 영향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인간 활동 때문에 지구가 얼마나 따뜻해졌는지를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 분석한 결과, 현재의 장기적인 지구 온난화 수준은 아직 1.5°C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세계기상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다시 한번 가장 더운 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지구 온난화 수준은 약 1.36~1.41°C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아직 파리협정의 목표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1.5°C에 매우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을 지금 시작해야만, 지구의 온도 상승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온도가 조금만 더 올라가도 폭염, 집중호우 같은 극한 기후 현상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를 꾸준히 관측하고, 위험을 미리 알리는 기후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체계를 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과 행동이 앞으로의 지구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더 똑똑하게 우리 바다를 만나는 길잡이, 해양의 모든 정보를 담은 해양기상기후정보로 확인하세요

노미정 기후과학국

기상청은 「해양기상기후정보」를 매달 발간하여 해양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양기상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한 통계자료,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예측 정보뿐 아니라, 조석, 해양안전, 어업전망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은 「해양기상기후정보」를 소개합니다.

## 바다에서 ‘흐름’을 읽다

어느 어민은 매년 같은 시기가 되면 예전 기록을 먼저 살핍니다. “이맘때 수온이 어땠지? 올해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그날의 바다 날씨뿐만이 아니라, 이달의 바다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입니다. 10년 전 같은 달의 해수면 온도, 최근 몇 년간 반복된 파도의 높이, 그리고 올해 예측까지. 바다의 예보 및 특보가 나타난 하루 단위의 날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바다는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에 의해 더 긴 시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쌓여 만들어 낸 장기간 변동도 중요합니다. 어떤 해에는 같은 시기에도 수온이 더 높고, 어떤 해에는 파도가 유난히 잦고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차이는 장기간 축적된 기후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땠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바다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은 그 흐름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 시간을 모아 만든 바다의 정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기상청의 「해양기상기후정보」입니다. 이 자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를 연결해 바다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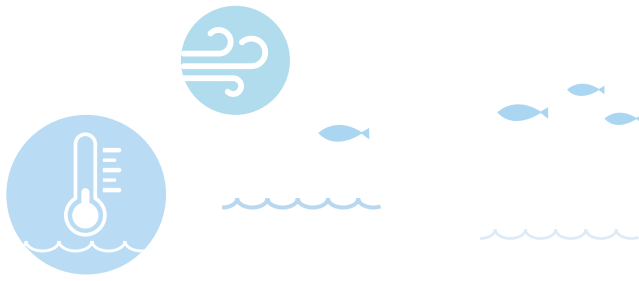
- ▲ 최근 10년 동안 같은 달에 나타난 해양기상 특성
- ▲ 월별 평균 해수면 온도의 상태와 예측
- ▲ 유의파고의 계절적 특성과 예측
- ▲ 해역별 바람의 방향과 속도 분석

이처럼 ‘시간을 축적한 데이터’ 위에 ‘앞으로의 전망’을 더해 바다를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 5개 기관이 함께 전하는 바다의 핵심 정보

「해양기상기후정보」는 기상청 주관으로,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과학원 각 기관이 가진 정보를 모아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자료입니다.

- ▲ 해양기상기후정보
- ▲ 조위 및 조석 예보
- ▲ 해양사고 현황 및 예방 정보
- ▲ 주요 어종 어황 전망정보



먼저 기상청은 바다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해수면 온도, 파도 높이, 바람 특성 등 해양기상 관측자료와 통계 정보,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의 해양기상 상태를 예측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바닷물의 높낮이를 알려주는 조석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양경찰청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최근 해양사고 현황과 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 안전 정보를 제공하며,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조업계획에 도움이 되는 어황 전망 정보를 제공합니다.

월별 해양 정보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변동성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 평년보다 높은 해수면 온도가 예측된다면 어종의 이동이나 어장 형성 시기를 미리 가능할 수 있고, 유의파고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예상된다면 해양 활동 계획을 장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바다를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준비하는 대상으로 바꾸는 것이 해양 기후정보의 역할입니다.

### 누구나 볼 수 있는 바다의 정보

현재 「해양기상기후정보」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연구기관 및 지자체 등 120여 개 해양 관계기관에 제공되고 있으며, 기상청 누리집과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달, 바다의 다음 장을 넘기다

바다는 매일 변하지만, 그 변동성은 흐름 속에서 이어집니다. 「해양기상기후정보」는 그 흐름을 읽게 해 주는 자료이자, 한 달과 계절을 준비하고, 결국 바다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다를 만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길잡이'가 됩니다. 어디로 나아갈지,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막연했던 바다의 변화를 방향과 기준으로 바꿔주는 안내자처럼 말입니다. 앞으로도 「해양기상기후정보」가 바다를 더 똑똑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길잡이로 자리하길 기대합니다.

## 2026년 3월 해양기상기후정보

2026. 3. 4. 발표

### 2026년 3월 해수면 온도 전망 (2.23. 발표)

지역	해역	10%	50%	90%
서해	북부	7.6	7.4	7.2
	중부	7.6	7.4	7.2
	남부	7.6	7.4	7.2
남해	북부	13.5	13.3	13.1
	중부	13.5	13.3	13.1
	남부	13.5	13.3	13.1
동해	북부	10.8	10.5	10.2
	중부	10.8	10.5	10.2
	남부	10.8	10.5	10.2

평년해수면 온도: 서해(10.6, 6.7%), 남해(13.3, 1.3%), 동해(10.8, 1.3%)

※ 평년별위는 과거 30년(1991~2020)년간 연도별 30개의 평균값 중 대략적으로 33.33%~66.67%에 해당하는 값

<확률별 해석>

확률	해설
높음 확률이 50% 이상	평년보다 높겠음
(남부)20%이상(40)높음(40)	평년보다 대체로 높겠음
해수 확률이 50%이상 또는 (남부)30%이상(40)높음(30)	평년과 비슷하겠음
(남부)40%이상(40)높음(20)	평년보다 대체로 낮겠음
낮음 확률이 50% 이상	평년보다 낮겠음

### 최고 조위

지점	일자	조위값
인천	3월 21일	884m
완도	3월 21일	377cm
포항	3월 22일	17cm

**안전**

**해양조난사고 현황**

- 3월에는 누적 해양사고 1,047건 발생
- 총출사고(9.84%)와 전복사고(4.39%)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음

**해양사고 예방정보**

- 항법 준수 철저, 견시 강화 및 레이더 등 항해장비 상시 점검 적정운용 필요

**어황**

- 고동어는 평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됨
- 전갱이, 실오징어, 갈치, 참조기, 삼치는 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멸치는 평년 수준으로 전망됨

### 해수면 온도 현황 및 예측자료

① 2026년 2월 해수면 온도 현황(NOAA OISSTv2)

2월 평균      2월 평년대비 편차

② 2026년 3월 기후예측시스템(GloSea6) 해수면 온도 편차

3월 1주(3.2~3.8), 3월 2주(3.9~3.15), 3월 3주(3.16~3.22), 3월 4주(3.23~3.29)

1) OISSTv2: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version 2. 최신 내상(버전2)인 해수면 온도  
2) 편차: 예측에서 기후예측모델의 과거 직분기(1993-2016년) 동안의 평균값을 뺀 값

### 2월 분석

최근 10년(16년~25년) 및 2026년

#### 해수면 온도(°C)

연도	최소	1차	중간	3차	최대
최근 10년	5.1	5.7	11.9	12.8	14.4
2026년	4.2	5.9	12.8	13.5	15.6

#### 유의파고(m)

연도	최소	1차	중간	3차	최대
최근 10년	0.5	1.6	1.8	2.2	3.1
2026년	0.3	1.1	1.5	2.2	3.9

해역	해수면 온도(°C)			유의파고(m)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평균값	5.3	14.1	12.2	5.2	14.9	12.4
	10	13	16	0.9	1.2	1.5

### 3월 해양기후 특성

최근 10년(16년~25년)

#### 해수면 온도(°C)

연도	최소	1차	중간	3차	최대
최근 10년	5.3	7.7	12.1	13.5	14.5
2026년	4.2	5.9	12.8	13.5	15.6

#### 유의파고(m)

연도	최소	1차	중간	3차	최대
최근 10년	0.5	1.1	1.5	2.0	3.1
2026년	0.3	1.1	1.5	2.2	3.9

#### 풍랑특보일 수(일)

연도	평균	최대
최근 10년	3.2	9.9
2026년	3.2	13.1

※ 2025년 3월 최근10년(16~25년) 최상은 마중은 마치는

해역	해수면 온도(°C)			유의파고(m)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평균값	6.4	14.0	12.6	0.7	1.2	1.4

상한(66.67%)      최단값      중간값      최상값

※ 빅스필링은 33.33%~66.67%에 해당하는 값으로, 국가승인통계 지정 해양기상부이 17개소를 활용함

[해양기상부이 지정 위치]

# 국가 기상관측망을 함께 지키는 동반자, 기상전문기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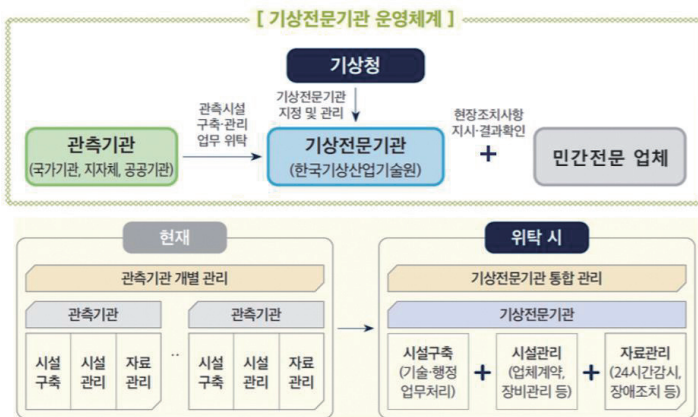


오기룡 관측기반국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기예보와 기상특보는 지상에서 하늘까지 수많은 관측값의 결과입니다. 전국의 산과 바다, 농촌과 도심 곳곳에 설치된 기상관측망은 1년 365일 24시간 쉼 없이 대기의 변화를 기록하며 관측합니다. 이를 통해 수집된 기상관측자료는 기상청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관측자료도 공동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의 관측자료의 최적화를 위해 기상청은 기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협력하여 관측시설의 구축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상관측망의 숨은 조력자

기상전문기관은 관측기반국으로부터 기상관측시설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관측 목적에 맞는 입지 선정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공, 장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 그리고 관측자료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까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밀 기술 분야입니다. 이 전 과정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주체가 바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입니다.



기상전문기관 운영체계도



기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전경

## 경험과 기술력의 집약체 '관측'

기상관측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관측시설 위치에 따라 풍속이 달라질 수 있고, 주변 지면 상태에 따라 기온이나 강수 값이 영향을 받아 기후값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비 설치 전 반드시 현장 환경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기상 관련법에 따른 장애물이나 기후환경, 중복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기초 구조물 시공, 센서 검정, 전원 및 통신 설비 구축, 시험 운영과 자료 검증까지 관측표준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해당 지역의 관측값 신뢰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기상전문기관의 경험과 기술력이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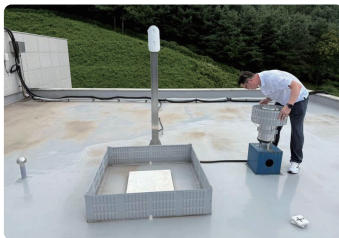
기상관측장비 설치 현장



관측품질을 위한 AWS 긴급보수작업

### 365일, 멈추지 않는 관리의 시간

기상관측은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연속 관측이 원칙이기 때문에, 장비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상전문기관은 정기 점검과 예방 정비를 통해 센서 오차나 통신 상태를 상시 점검하며, 낙뢰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이후에는 긴급 복구를 실시합니다. 관측자료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24시간 감시체계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신속하게 현장 점검으로 자료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측장비 예방 점검



관측자료데이터 유지관리



강수량계 정기 검정

### 관측자료, 국민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

이러한 업무가 중요한 이유는 관측자료가 단순한 수치 정보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측자료는 호우·대설 긴급문자서비스, 태풍 진로 예측, 집중호우 감시, 특보 발령, 항공기 안전 운항 등 국민 생활 전반에 활용됩니다. 특히, 극한호우 등의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에는 관측자료의 1분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어, 관측자료의 품질과 지연 없는 자료 수신이 꼭 필요합니다.

### 기상전문기관, 이런 점이 좋습니다

기상전문기관 제도를 이용하면 기상관측에 특화된 기술 인력이 관측망을 관리함으로써 설치 품질 및 유지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어 국가관측망을 효율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2025년 한 지자체는 기상전문기관 위탁 후 관측자료의 오류를 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자료결측수가 90% 이상 감소(1,036건('25.1.) ⇒ 64건('25.8.))하고, 수집률은 8% 이상 높아지는 효과(91.32%('25.4.) ⇒ 99.81%('25.8.))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24시간 실시간 감시와 지역 거점 기반의 대응 체계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치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관측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 하늘을 향한 묵묵한 자부심

겨울 강풍이 몰아치는 산 정상에서, 높은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오늘도 누군가는 하늘을 향한 장비를 점검하고 관측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손길이 머문 자리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다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보가 되어 돌아옵니다.

기상관측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에 우리는 내일의 하늘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기상전문기관과 함께 더욱 촘촘하고 신뢰도 높은 국가기상관측망을 운영하며, 급변하는 위험기상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를 이어가겠습니다.



# ‘K-팝, K-콘텐츠, 그리고 K-기상과학’

## 기상과학 인재를 키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기상과학해설사를 만나다

안현진 대구지방기상청

2025년 전국과학관 과학해설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국립대구기상과학관 황소현 기상과학해설사를 만나, 기상과학관 근무 계기와 특별 콘텐츠 개발 및 에피소드, 기상과학해설사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들어 보았습니다.



날씨야 놀자-휘리릭 바람도사



프로그램 운영 모습

여러분 K-팝, K-콘텐츠와 함께 K-과학을 아시나요? K-과학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경쟁력과 인재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과학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기술과 함께 사람을 함께 키웠기 때문입니다. 기상청도 기상과학관을 설립해 기상과학 인재를 키우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상과학해설사가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지요? 국립대구기상과학관 황소현 기상과학해설사를 만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과학관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구기상과학관에서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황소현 기상과학해설사입니다. 2023년부터 근무해 올해로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기상과학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변화무쌍한 날씨가 사실은 다양한 과학적 원리에 의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하루하루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사람들에게 날씨를 더 정확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할수록 기상과학의 가치와 필요성을 더욱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상과학해설사로서 일에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립대구기상과학관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 코너가 있나요?



네,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날씨야 놀자」라는 사이언스 드라마입니다. 기상과학 개념에 스토리를 담고 참여형 체험을 결합해 관람객이 쉽고 몰입감 있게 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천방지축 공기? 유령! 대소동」, 「휘리릭 바람도사」 등 제목만 들어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절별로 주제를 변경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관람한 후에는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해 기상원리를 오감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얘기를 들으니 흥미로운 콘텐츠도 많고, 직접 체험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많은 것 같아요.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프로그램마다 성격과 대상이 달라 관객에게 보여주기까지 기획, 시연, 운영, 점검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 자체가 큰 보람이며, 이런 축적이 기상과학관과 기상과학해설사인 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지난해 전국 150개 과학관을 대상으로 열린 전국 과학관 과학해설 경진대회에 참가한 일입니다. 큰 대회라 부담이 많았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했습니다. 관객이 기상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험 도구를 직접 제작하며 약 5개월을 준비했고, 「붕붕 날씨택배」라는 제목으로 무대에 올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해설의 깊이와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학해설 경진대회



과학해설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많은 준비와 노력의 결과라 더 의미가 있고 보람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상과학해설사를 꿈꾸는 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기상과학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상과 과학해설에 대한 역량이 각각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기 과학에 관심이 많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역량은 기상과학관에서 채워드립니다. 한국과학관협회의 과학해설사 신규양성 교육 실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일을 배우며 전문 해설사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기상청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통해 기상현상과 관측, 예보, 기후변화까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습니다. 날씨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알려 주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과학해설 경진대회 준비

국민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기상과학관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는 기상과학해설사들이기에, 오늘의 기상청이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 여보 뒤에서 현장을 잇는 행정의 하루

최도윤 수도권기상청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날씨 정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비가 온다는 예보, 폭염 주의보, 한파 경보까지, 이러한 정보는 단순히 하늘을 관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노력과 준비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된다.

정확한 기상정보가 전달되기까지는 예보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의 역할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에서 근무하던 중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약 한 달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교육 과정을 통해 팀원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며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협업의 중요성을 배웠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활용과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수도권기상청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상정보가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지기까지의 다양한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행정업무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상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장비와 환경을 준비하며,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의 중요성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다. 업무를 수행하며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협업의 가치였다. 기상청의 업무는 한 부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각 부서가 역할을 나누어 정보를 공유하고, 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전체 업무가 끊김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작은 준비 하나가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이 느껴졌다. 이러한 준비의 중요성은 현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행동요령을 알리는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물을 자주 마시고, 햇볕을 피하며, 무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이러한 안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겨울철에는 기상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직접 연탄을 나르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전하는,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연탄 나눔 활동에 참여하였다. 한파 대응 물품과 기념품을 전달하며 겨울철 건강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알렸다. 이 경험을 통해 기상 정보는 단순한 예보를 넘어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청 내에서는 조직문화 개선 업무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도록 원데이 클래스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그중 하나로 테라리움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직원들이 직접 식물을 심고 가꾸는 체험을 통해 자연과 기후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작은 식물 하나도 햇빛과 온도, 습도에 따라 성장하는 모습이 달라진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직접 관찰하며 날씨와 환경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직원들의 휴식과 소통을 돕고, 기상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기상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항상 영향을 주고받는다. 날씨에 따라 옷차림이 달라지고, 생활 방식도 변화한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큰 안전과 편안함을 만들어 낸다. 그동안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행정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연결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정확한 기상정보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맑은 자리에서 기상정보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날씨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예보는 하늘에서 시작되지만, 그 정보가 국민의 삶을 지키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결이 필요하다. 그 연결의 한 부분으로서, 예보 뒤에서 현장을 잇는 행정의 역할을 묵묵히 이어가고자 한다.

#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4월 9일)



기상청은 정부대전청사 1동 국제회의실에서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기상청 공무원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4월 10일)



기상청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 수행으로 기상청 업무를 한 단계 도약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 입교식 (4월 13일)



기상청은 말레이시아 등 7개국 기상예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 입교식을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실시했다. 이번 초청연수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 이미션 기상청장,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개최식 참석 (4월 20일)



이미션 기상청장은 전라남도 여수에서 개최된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개최식에 참석하여 전지구적 녹색대전환 동향을 공유하고, 범국민 기후행동 촉진 및 우리나라 녹색대전환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 Platform

기상청에 소식지 <하늘사랑> 외에도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상청 온라인 채널과 이달의 인기 있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이달의 추천 콘텐츠**

장마 예측 가짜뉴스 바로 알기



**기상청이 장마 기간을 예측·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장마 #장마기간 #가짜뉴스 #팩트체크



최근 SNS를 중심으로 장마의 시작과 종료 시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장마철을 앞두고 대비를 위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다만 SNS 속 장마 시기 관련 정보는 기상청의 공식 발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상청은 2008년 이후 장마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사전에 발표하지 않으며, 장마가 끝난 뒤 분석을 통해 사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 등 장마 관련 핵심 내용을 기상청 유튜브 쇼츠로 확인해 보세요. 기상청은 올여름에도 호우 대비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특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말 날씨 이슈도 기상청 유튜브로 만나요!



웹진  
kma.go.kr/kma

<하늘사랑>은 기상청 행정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페이스북, X)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웹진 보기**

기상청 행정 누리집(홈페이지) > 알림·자료 > 기상간행물




소셜미디어 (SNS)

기상청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날씨를 주제로 국민 여러분과 일상을 나누며 소통합니다. 특히, 날씨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기상·기후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예로부터 생활 속 날씨 정보 활용법과 기상과학 풀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주소 또는 QR코드를 통해 기상청 SNS 채널을 방문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구독 또는 팔로우, 콘텐츠 '좋아요'를 누르고,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 주세요~


**기상청 대표 SNS 채널**




유튜브  
youtube.com/@기상청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ma\_skylove

블로그  
blog.naver.com/kma\_131

페이스북  
facebook.com/kmaskylove

X(트위터)  
x.com/kma\_skylove



📷 김은경

안개가 천천히 호수를 감싸안으며, 충주호는 세상과 한 걸음 물러난 듯 깊은 고요에 잠겨 있습니다. 마른 가지 사이로 피어난 분홍빛 꽃들은 끝과 시작이 맞닿은 계절의 경계를 조용히 일러줍니다.



📷 정경석

전국에서 가장 늦게 벚꽃이 핀다는 전북 진안 마이산을 다녀왔습니다. 봄이 가는 길을 더욱 화려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하려는 듯 핑크빛 벚꽃과 푸른 하늘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 실로 장관이었네요.



📷 장경식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 짙은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푸른빛 구름 속에서 홀로 빛나는 달은 세상이 잠든 사이 깨어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 어둠, 당신의 날씨

우리는 같은 날씨 안에서  
저마다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땠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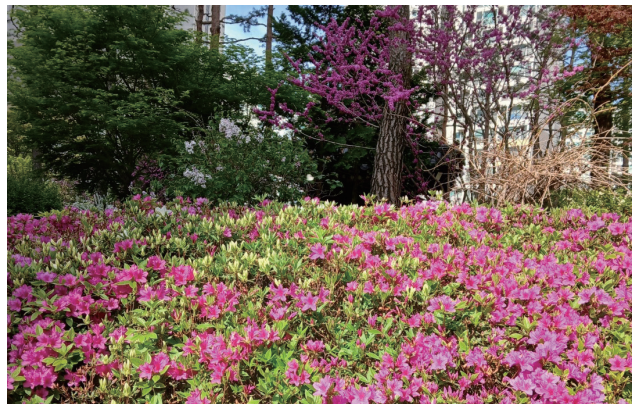


장진아

제주 교래자연휴양림을 찾은 이 날의 장대비 기세는 정말 대단했어요.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귀가 아플 수 있다는 것, 사진에 빗줄기가 찍힐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죠. 신비로운 이 세계에 잠시 머문 듯하던 순간입니다.

장아영

길을 건다 파도 같기도 하고 새의 깃털 같기도 한 독특한 구름을 발견했습니다. 구름은 늘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때로는 아주 짧은 순간에 오래 남을 감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쉽게 잊지만 어떤 순간은 가장 깊게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강예숙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 끓고 있다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영산홍, 철쭉부터 박태기나무, 5월에 향긋한 꽃을 피우는 라일락까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4월의 꽃 피는 날씨입니다.

참여 방법

자신의 일상이 담긴 날씨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소개 멘트(100자 이하)를 이메일(kmanews@korea.kr)로 5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께는 운누리상품권(1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실 때는 **성함·연락처·주소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기상청에서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목적): 성함, 연락처, 주소(본인 확인 및 상품권 지급)  
- 보유 및 이용기간: 1년(개인정보 수집·이용 후 즉시 파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상품권 지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상품권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본 코너에 선정된 사진은 발표 해당호에 한해 게재되며,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 규정을 어겨 응모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 청년월세 지원사업

##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4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생애 1회)



### 지원대상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전입신고 필수)

### 선정인원

전국 6만명(지역별로 선정인원 수가 다름)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과거 국토부가 시행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을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일: '24.2월~'25.2월) 수혜자는 2차 사업 지원 종료 시(2027년 12월)까지 신청 불가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6.3.30(월) 09:00 ~  
2026.5.29(금) 16:00

선정자 발표 2026.9.14(월)

\*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포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소득·재산 기준

소득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당신의 한마디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여는 건강내일

# 2026 지역사회건강조사

|기간| 2026년 5월 16일(토) ~ 7월 31일(금) |대상| 19세 이상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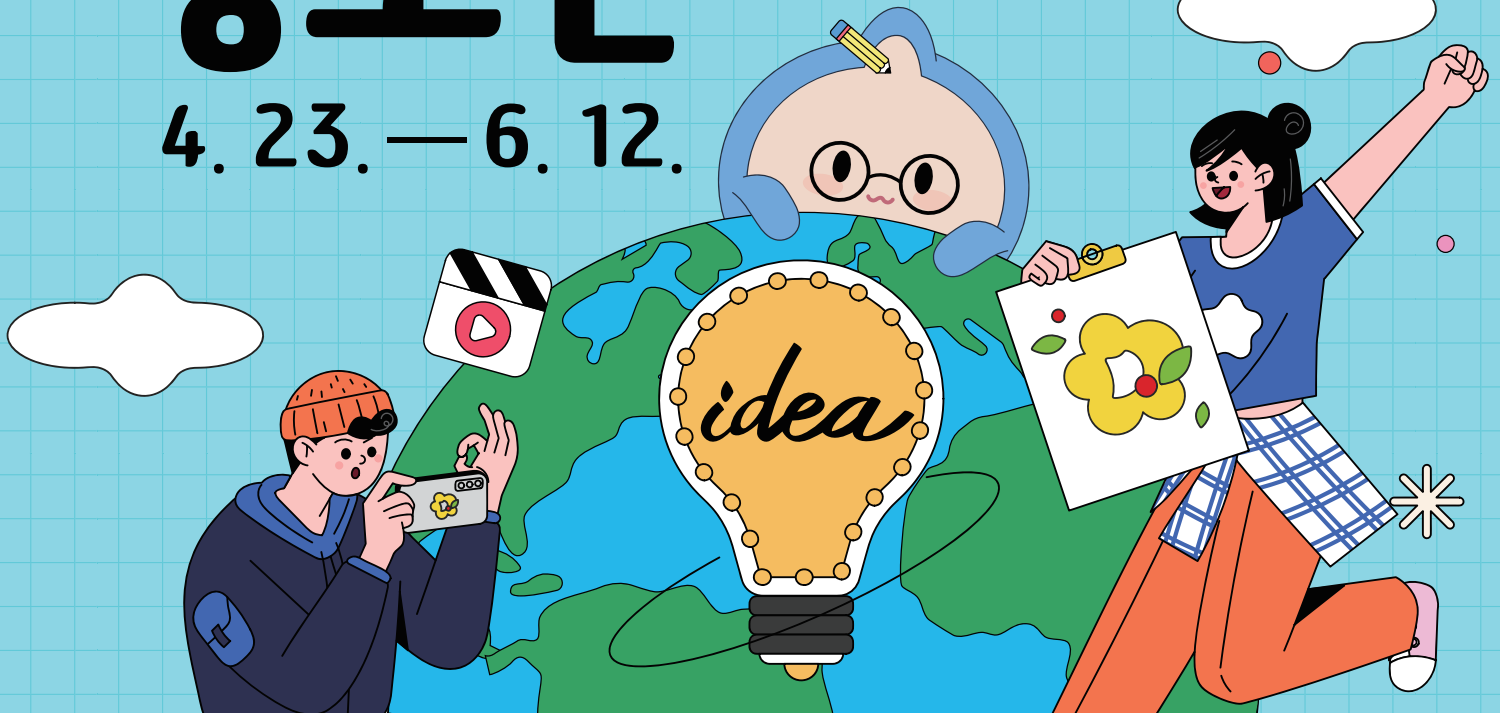
# 제7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

4. 23. — 6. 12.



## 달콤기후란?

달달하고 아름다운 기후변화과학의  
즐임말로 기후변화과학 3요소의  
적극적인 활용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 공모분야

분야	디자인	이야기	영상
부문	그림, 캘리그라피	4행시	숏폼(생성형 AI)

### 공모주제

온실가스, 달콤기후, 미래날씨

### 참가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단체 제외, 개인별 최대 3작품)

### 접수방법

기상청 행정 누리집(kma.go.kr/kma/),  
기후정보포털(climate.go.kr), 소통24(sotong.go.kr)를  
통한 온라인(구글폼) 접수

### 수상자 발표

2026년 7월 22일(수)

### 시상내역

구분	상훈	상금	작품수	
디자인 (그림, 캘리그라피)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	200만 원	1점
	최우수상	기상청장상	각 100만 원	2점
	우수상		각 50만 원	2점
	장려상		각 20만 원	5점
	입선	-	각 10만 원	10점
이야기 (4행시)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	50만 원	1점
	최우수상	기상청장상	30만 원	1점
	우수상		20만 원	1점
	장려상		각 10만 원	2점
	입선	-	각 5만 원	10점
영상 (숏폼)	특별상	-	각 20만 원	5점

총 40점, 970만 원

\*심사결과 등에 따라 시상내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재금과금은 본인 부담

### 문의처

달콤기후 공모전 운영사무국 | 평일 10:00~18:00

☎ 070-7039-4373, 4121 ✉ dnc-01@daum.net

\* 포스터는 달콤기후체를 사용하여 디자인 하였습니다.